

# 초 대 의 글

안녕하세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입니다.

먼저, 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때 배출량 산정과 검증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현실적인 무역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 광양 지역도 철강과 석유화학분야 산업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탈탄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려웠던 총 23개의 정부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2월 4일 오후 2시에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부처별로 개별 진행되던 사업들을 모아 국고 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천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 분야별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장기·저리(금리 1.3%) 융자 지원과 아울러, 탄소중립설비 도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공정 저탄소화 기반 조성 등 설비 투자 비용을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감축량이 큰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경매사업(250억 원)'과 공급망 내 기업들이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 원)' 등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ESG 컨설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EU CBAM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자동 산정 솔루션(MRV) 보급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다소나마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각 사업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영산강청에서는 언제라도 소통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 지역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배상